

제네바서 ‘탈북민 강제송환 및 북한여성, 장애인 권리’ 사이드이벤트 개최
-탈북민 장애인의 유엔인권이사회 최초 증언행사 및 제네바 최초 화요집회

사이드이벤트 행사 일시 : 2024. 3. 18(월) 14:00-16:00 CET

장소 : Restaurant Vieux Bois Geneve(av. de la Paix 12, 1202 Geneve)

화요집회 일시 : 2024. 3. 19(화) 15:30-16:00 CET

장소 : 유엔 광장 (Broken Chair 앞)

1.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가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Global Center for Responsibility to Protect, 써니픽처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한보이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의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사이드 이벤트(병행행사)를 개최한다.
2.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각국 대표단, 북한인권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본 행사는 세계가 분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기구 지위를 최초로 부여받은 북한인권 전문 NGO인 성통만사를 중심으로, COI 보고서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제언과 함께,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상을 다루는 자리로, 탈북 여성 장애인이 직접 유엔 인권이사회 무대에서 증언하는 최초의 현장이 될 것이다.
4. 또한 작년 10월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을 계기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지명희씨가 강제송환된 후 북한에서 겪은 심각한 고문과 인권 유린 현장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강제북송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행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5. 3월 18일 병행행사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성통만사의 김태훈 이사장,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북한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6. 이튿날 3월 19일 15:30 유엔 광장(부러진 의자 앞)에서는 제252차 화요집회가 유엔에서 최초로 열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와중에서 세계 최장, 최악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7. 오는 3월 20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통만사, 한변, 올인모는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로 이동하여 약 400여명 규모의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4. 3. 13.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써니픽처스

Revisiting Human Rights in the DPRK:

Forced Repatriation and Disability Rights in Anticipation of the UPR

Date: 18 March, 2024

Time: 14:00-16:00 CET

Venue: Restaurant Vieux Bois Genève (av. de la Paix 12, 1202 Genève)

Organizer: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Co-sponsors: Hanbyun, Global Center for Responsibility to Protect, Sunny Pictures, 10 Million Divided Korean Families Association,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Hanvoic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rporation

Event Program

- Welcome Remarks by Tae-hoon Kim, President of PSCOR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Corporation, Honorary Chairman of Hanbyun
- Statement delivered by Elizabeth Salmo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tatement delivered by Shin-wha Lee,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 Statement delivered by Julie Turner, the U.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 Testimony delivered by Mi Young Lee, North Korean escapee with disability
- Testimony delivered by Myeong hui Ji, North Korean escapee, survivor of forced repatriation
- Closing remarks and Q/A session

